

# 중앙불전 · 혜화전문 · 중앙승가대 있던 도량

## 근 · 현대 승가교육의 산실 개운사

개항 이후 한국사회는 다양하게 변화했다. 가장 빠르게 변한 것은 의식주이다. 기본이 변화된 다음 관심을 갖는 것은 서구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학문이었다. 서원에서 이루어지던 한학은 신학문을 배우는 학교로 빠르게 변모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본 불교계도 한 시절에서 참선과 간경 그리고 염불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삼문수업(三門修業)에서 벗어나 시대에 맞는 교육을 도모했다.

한국불교에 있어 근 · 현대 많은 선지식들은 승가교육을 강조했다. 많은 개혁론에서도 승가교육은 빠지지 않고 거론됐다. 왜 그들은 그렇게 교육을 강조했다? 현재 타종교의 교세가 그들의 교육적 바탕에서 비롯됐음을 볼 때 답은 자명해진다. 향후 불교의 성쇠 역시 승가교육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근대 불교교육이 시작된 곳은 원흥사였다. 이곳은 1899년 한국불교를 관리하던 대본산이 있던 곳이다. 그 역할이 유명무실해지자 1906년 불교연구회에서 이곳에 명진학교를 세웠다. 불교인들의 염원으로 세워진 근대적 교육기관이었던 탓에 교계의 기대를 받았다. 처음 신입생을 뽑을 때도 전국 중법산 사찰에서 대교과(大敎科)를 마친 자만이 추천을 받아 입학했다.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생각이 있어도 진학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과정을 이수한 상태에서 입학했기 때문에 교육수준은 상당히 높았다.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신학문을 교수해 포교인재를 양성하려 했기 때문에 불교관계의 과목보다는 일반학과 과목의 비중이 컸다. 이와 함께 직제는 물론 강의도 학기나 교과목에 따라 수시로 전공에 맞는 강사가 초빙됐다. 그리고 사회명사가 특강에 초빙돼 교육적 질이 우수했다. 학업과정도 상당히 어려웠던 까닭에 소수의 정선된 졸업생만이 사회에 배출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여기에서 배출된 사람들 가운데 한국불교의 모순을 척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됐고, 그러한 사상이 불교를 근대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다. 이후 명진학교는 교단의 변화에 따라 불교사범학교, 1914년 고등불교강숙, 1915년 중앙학림, 1928년 중앙불교전문학교, 1930년 중앙불교전문학교, 1940년 혜화전문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근대 불교교육을 시작한 곳이 원흥사라면 불교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켜 사회적 위치를 높인 곳은 개운사였다. 이곳이 교육의 장이 된 것은 석전 박한영의 영향이 크다. 불교계의 대강백으로 박한영이 당대의 최고였다. 독립선언서를 썼던 최남선은 "나는 누구에게도 물어볼 것이 없는데, 석전에게는 물어볼 것이 있다"고 했다.

석전은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이 되자 불교계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했다. 중앙불전 교사가 바로 개운사 내 대원암이었다. 이곳에서 능력 있는 인재들을 데려다 불교계 동량으로 키워냈다. 특히 문학에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 많았다. 서정주, 조지훈,

승가교육 발전시킨 학문의 전당  
박한영 스님 불교계 인재 양성 주력  
서정주 등 기라성 같은 문인 배출  
20년간 중앙승가대 뿌리 내린 곳



불교교육을 발전시킨 대강백 석전 박한영 스님

김달진, 조중현 등 광복 후 우리 문학사에 한 획을 그었던 기라성 같은 문인들이 개운사 중앙불전에서 석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가운데 미담 서정주와는 남다른 관계에 있었다. 그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으로 퇴학당하면서 방향했다. 석전은 그를 중앙불전 학생으로 불러들여 시인으로 키웠다. 그래서 서정주는 석전을 "내 뼈와 살을 데워준 스승"이라고 부르며 평생 존경했다.

이렇게 근대 불교교육에 있어 많은 역할을 한 개운사는 혜화전문학교 이후 교육의 장에서 멀어졌다. 개운사는 다시 평범한 사찰로 돌아가는 듯 했지만 한번 맡은 시대적 사명은 계속됐다. 다시 현대 승가교육의 장이 되어 많은 수행자를 배출한 것이다.

광복 후 많은 사람들이 불교계의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그 가운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분이 성철과 정담이었다. 성철은 한국불교의 난제인 승가교육을 해결하기 위해 승가대학의 설립을 제시했다. 그는 어느 불사보다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다가오는 경쟁사회에는 수행자가 강원을 졸업한 것만으로는 사회적 지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예견한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사찰의 강원을 국가가 인정하는 대학 과정으로의 승격이었다. 성철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상함으로써 자신의 염원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사였던 개운사 대원암

첫째, 사미 · 사미니계의 수계 대상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해야 한다. 고졸 이하의 학력 소지자가 절에 왔을 때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절에서 이수시킨 다음 사미 · 사미니계를 받도록 한다.

둘째, 사미와 사미니계를 수계한 자는 문교부에서 공인 받는 4년제 승가대학을 설립하여 입학시키고 철저히 공부를 하도록 한다. 승가대학을 졸업한 후, 각기 능력과 취미에 따라 종무행정도 하고 참선도 하고 포교도 한다.

마지막으로 승가대학의 교육은 지형합일의 철저한 실행 교육이 되어 함을 강조했다. 그것은 승가의 교육에 있어 철저한 실행 교육이 없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됨을 알고 있었다.

성철 못지않게 승가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 정담이었다. 그 역시 도제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승가대학의 설치를 제시했다. 그것은 현행 강원과 선원의 제도와 동떨어진 제도가 아니라 현재의 교육체제를 개조해 성불할 수 있는 수행자와,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스승을 배출할 수 있는 승가학원으로의 변신이었다.

그런 승가학원의 교과과정은 종래의 방법을 탈피해 불교일반에 대한 이론 영역, 참선과 염불과 예불, 독경 등의 수행적 영역, 문화사회적 정책 문제에 대한 불교정책의 실천 영역에 알맞은 교과 과정으로의 개편이었다.

세부적인 방법으로 강원과 선원을 현대적인 제도와 교과 내용으로 한 승가학원을 고등부 정도의 수준으로 높인 후 대학 과정으로 전환하고 이곳을 졸업한 학생에게 비구계를 주는 방안이었다. 그리고 이곳을 졸업해야 대학원 과정의 초등선원이나 본발사의 종무직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최후의 박사과정인 고등선원을 설치하여 종단의 지도자급을 배출하고자 주장했다.

종단 역시 승가교육에 관심을 기울였다. 1965년 9월 '한국불교 11대 과업'에 포함될 만큼 비중 있게 다루면서 승가대학 설립을 위해 노력했다. 1968년 7월 10일 총무원은 승가대학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나 구체적으로 실행되지는 못했다. 그 후 1969년 7월 제20회 총회에서 중앙교육원의 설치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의해 1971년 10월 7일 조계사에서 제1기 교육으로 60명의 수강생을 한 달 동안 교육했다. 그리고 교육목표도 급변하는 사회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승려교육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성과를 거두기는 너무 미흡했다.

이후에도 승가대학의 설립은 꾸준히 논의됐다. 1976년 12월 제 45회 중앙총회에서 승가대학추진위원회가 설립돼 장소와 운영자금 등을 논의했으나 설립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 후 1979년 2월 24일 의정부 쌍룡사에서 정년 승려들이 중앙불교승가학원을 시작하면서 승가대학의 첫 여정을 열었다. 이후 3월

18일 승가학원은 서울 돈암동의 보현사로 옮겨 연수부와 교양부를 둔 2년제로 시작했다. 1980년 학교명을 중앙승가대학으로 개정하고, 12월에 구의동 영화사로 학사를 이전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은 승가교육이 제자리를 잡은 것은 1981년 개운사로 학사를 이전하고 이곳에서 20년간 승가교육의 체계가 세워진 이후이다. 개운사로 옮긴 승가대학은 1989년 7월 각종학교 인가를 취득해 정규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됐다. 1990년 신입생부터는 정규 대학에 준하는 학력인정을 갖추고 일반대학에 걸 맞는 학제와 교육내용, 교육시설 등을 구비했다. 마지막으로 1996년 12월 11일 교육부로부터 정규대학의 인가를 취득함으로써 승가교육의 염원을 이뤘다. 20년간 승가교육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보듬어준 개운사는 2001년 1월 승가대학이 김포로 옮겨지면서 다시 도심의 조용한 사찰로 돌아왔다.

개운사 승가대학에서 배출한 졸업생이 대략 천여 명에 가깝다. 이들이 한국불교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음을 볼 때 개운사는 평범한 사찰로 보일지 몰라도 수많은 졸업생에겐 학문의 전당으로 남을 것이다.



김경집/진각대 교수

**화제의 신간**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타블로이드판 257×364, 536쪽  
정가 380,000원

입금계좌(예금주: 임현주) : **농협 023-02-500940**

**3천권 돌파  
1주년 기념**

**50% 파격세일**

정가 380,000원

**180,000원**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듣지 않습니다. 귀신도 피가 많아지고 악상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들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41) 943-6882 / 010-3813-4443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만인지 상대방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귀신뱀은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일자 일간별로 한눈에 속속 알 수 있게 초시를 확실하게 설명!

정가권당 120,000원

권당 **60,000원**

신국판/양장본/567쪽 ① 신국판/양장본/712쪽